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2. 24.

북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규식

1. 발 의 자: 이민옥 의원

2. 제안이유

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이하 “경제활동 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한 종합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경제활동 촉진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이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한 홍보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여성가족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2021. 2. 9.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우리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과 모성보호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와 안 제4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해 구청장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경제활동 촉진 시책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제활동 촉진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홍보와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평등사회를 표방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가정과 육아에 집중한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보니, 이로 인해 직장인 여성들은 ‘슈퍼맘¹⁾’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 2020년 경력단절여성 현황²⁾에 따르면 기혼여성 857만 8천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발생 사유는 육아 64만명, 결혼 41만 4천명, 임신·출산 32만 1천명, 가족돌봄 6만 9천명, 자녀교육 6만 2천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혼, 임신·출산, 육아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은데 가정에 대한 책임은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닌 함께 가정을 꾸린 모두에게 있기에,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아는

1) 육아, 집안일, 직장생활 모두 잘하는 엄마

2)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력단절 여성 현황’ 자료(2020)

여성인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의 복귀를 위해 사회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구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직업교육훈련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과 생활 균형이 가능토록 하여 양성평등 확립,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